

1 시험장에 강한
실전국어 전형태

나 없 이 기 출 품 지 마 라

○
비문학 ————— 전형태 편저

° 기출 문제, 이렇게 풀어야 한다

수능 국어 1등급을 위해서 누구나 기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년간 강남 대성의 재수생들과 상담해본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기출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았고, 단순히 자기 만족을 위한 양적 풀이에 그치고 있었다. 이제 제대로 기출을 풀이 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다.

문제풀이는 총 2단계로 이뤄져야 한다.

(1) 풀이 단계 (공부를 위한 준비 단계)

풀이 단계(공부를 위한 준비 단계)에서는 실전과 동일하게 지문당 시간을 정해놓고 풀이해야 한다. 소요시간은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문제당 90초가 적절하다. 예를 들어 한 지문에 문제가 3개가 달려 있으면, 그 지문은 총 $3 \times 90 = 270$ 초 안에 풀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중하위권 학생의 경우 너무 시간에 제한을 받지 말고, 본인이 풀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풀면 된다. 문제 풀이의 시간은 나중에 충분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분석 단계 (실제 공부단계)

분석 단계(실제 공부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문을 분석하고, 어떠한 선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때 정답을 절대 미리 봐서는 안 된다. 정답을 보면 학생의 인지구조가 이미 굳어져버려 정답의 근거만 신경 쓰게 되고, 본인의 선택한 오답의 근거를 제대로 수정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을 보기 전에 혼자서 본인의 정답(혹은 오답) 도출과정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필수적이다. 이때 본인이 생각한 근거를 문제에 간단하게 메모하는 것도 좋다. 메모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추상적 사고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력 향상은 바로 이 시간에 이뤄진다.** 문제는 많이 풀었지만 실력이 오르지 않는 학생은 바로 이 분석 과정을 대충하거나, 아예 안한 학생이다. 그만큼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분석 단계에서는 지문 분석과 문제 분석을 하면 된다.

[지문 분석]에서는 지문의 중심 정보를 요약 정리한다.

비문학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화제의 흐름이다. 지문 분석 칸에 지문의 중심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 잘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설지를 보면서 따라하다 보면 아무리 못하는 학생들도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지문의 경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쉬워도 기출이고, 지문 구성과 출제 포인트는 같다. 겸손한 마음으로 쉬운 지문이라도 꼼꼼하게 지문을 분석 정리하고 해설지의 내용과 비교해야 한다. **지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출제 포인트를 익힐 수 있고, 지문을 바라보는 독해력을 올릴 수 있다. 꼭 해야 하는 과정이다.** 참고로 해설지에는 가장 심플한 지문분석을 제시하였으니, 학생이 할 때는 해설지의 지문분석보다 조금 더 디테일해도 무방하다.

지문 분석에는 보통 다음 출제 포인트가 들어간다.

비문학 출제 포인트

- 출제 포인트 1. 화제와 직결된 정보
- 출제 포인트 2. 문제의 원인과 해결
- 출제 포인트 3. 견해나 판단의 근거
- 출제 포인트 4. 공통점과 차이점 (특히 지문 초반에서 공통점 체크는 필수!)

위에 제시한 것들은 평가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출제요소들이다. 물론 시험장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신경 쓰지는 못할 것이라고 반문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기출분석을 해야 실제 시험장에서도 좀 더 빠르게 지문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내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즉 실전을 위한 훈련이라는 것이다.

이제 문제 분석으로 넘어가자.

(1) [문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생각한 정답 선지의 근거다.

감으로 풀든, 지문과 보기를 근거로 해서 풀든 정답의 근거가 지문과 보기의 어디에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잘 지워지지 않는 애매한 오답 선지의 경우 본인이 생각한 근거를 아주 간단하게라도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메모를 해야 본인의 사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후에 정답과 해설지를 보면서 본인의 사고를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보통 한 지문 당 짧으면 15분, 길면 40분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문과 선지의 분석이 이뤄진 후에는 드디어 정답을 보면서 채점을 한다. 해설지의 내용이 부족하다면, 대성마이맥 QnA에 질문을 하면 된다. 이때 페이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만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이렇게 단계별로 문제를 풀었을 때, 비로소 학생의 실력은 향상이 될 수 있다.

문제풀고 바로 정답을 확인하는 행위는 실력향상과 전혀 상관이 없이 본인의 만족감만 높이는 허무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기출문제 풀이는 수능을 보기 전까지 세 번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2월(2학년 겨울 방학)에 1번(학원이나 과외 등 외적인 도움이 있을 때는 2학년 1학기부터 해도 괜찮다.), 7월(3학년 여름 방학)에 1번, 그리고 수능 보기 직전에 1번, 이렇게 3번이다. 흔히 기출을 많이 풀기만 하면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풀이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풀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많이 푸는 것이 좋다면 수능 국어 1등급은 N수생들이 독차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출을 많이 풀면 된다는 것은 기출문제집 회사들의 상술이다. 시간이 없다면 두 번만 풀어도 된다. 제대로만 풀면 두 번도 충분하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기출을 처음 풀 때에는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분석하고, 지문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한 지문 한 지문 최대한 꼼꼼하게 풀이를 진행해야 한다.

기출을 몇 번 풀어서 정답이 기억나는 학생들은

지문에서 어떤 부분을 정답으로 설정했는지, 왜 굳이 다른 선지 말고 이 선지를 정답으로 설정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좋다. 답이 기억나기 때문에 문제를 푼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문과 문제를 놓고 **출제 의도를 분석**한다는 생각으로 기출에 접근해야 하는 단계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면서 지문을 출제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단계다.

수능 직전에는

과연 이 지문을 내가 수능날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하는 것이 좋다. 실제 시험을 본다는 생각으로 지문을 보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따져보면서 최대한 '실전'답게 지문을 바라보는 단계다.

문제풀이의 양은

하루에 문과 학생 기준으로 비문학 3개 지문, 문학 2개 지문, 이과 학생 기준으로 비문학 2개, 문학 1개 지문이 적절하다. 물론 독학 N수생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된다. 다만 하루에 비문학 4개 지문, 문학 4개 지문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고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한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기출문제는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기출 문제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 문제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전 문제들은 최근 경향과 맞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과 첨삭을 받으며 풀이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다. 가장 깔끔한 것은 최근 7개년 기출이다. 따라서 7개년 기출을 풀이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모의고사식으로 풀이하는 것보다는 장르별로 풀이하는 것이 좋다. 장르별로 출제요소와 지문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비문학+시 혹은 비문학+소설 등 본인이 원하는 조합으로 문제를 풀이하되, 각 장르를 모아서 풀이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장르별 특징을 반복 체화할 수 있다.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식으로 풀이하는 것은 기출이 아닌, 사설모의고사로 하는 것이다. 기출 문제는 학교든 학원이든 EBS든 어디선가 한 번 정도는 보게 된다. 이미 보았던 문제를 시간 재고 풀면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시간은 기출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사고력, 독해력의 상승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고, 9평 이후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너의 싸움을 응원한다. 불꽃!

전형태

° 나기출의 특징 _ 문제편

시험감에 강한
실전 문제 전문집

II ° 사회

01	2013-6	70	16	2016-9b	100
	간접 민주주의			사색적삶과활동적삶	
02	2013-9	72	17	2016-11ab	102
	놀이			P와E의소송사례	
03	2013-11	74	18	2016-11b	104
	공적연금제도			지식 경영	
04	2014-6a	76	19	2017-9	106
	법률(손해배상)			사단법인	
05	2014-6b	78	20	2017-11	108
	저작물의 공정 이용			보험	
06	2014-9ab	80	21	2018-6	112
	소송			통화 정책	
07	2014-11ab	82	22	2018-9	114
	간접 광고			집합의례	
08	2015-6a	84	23	2018-11	116
	인센티브 계약			환율과정부정책수단	
09	2015-6b	86	24	2019-6	120
	광고 규제			계약과 법규	
10	2015-9b	88	25	2019-9	122
	지방자치단체의정책결정			채권	
11	2015-11a	90	26	2019-11	124
	공공 서비스			계약과 법률행위	
12	2015-11b	92			
	사회 이론				
13	2016-6ab	94			
	정별적손해배상제도				
14	2016-6b	96			
	현대의 개체화 현상				
15	2016-9a	98			
	소비자권익보호정책				

01.

장르별로 편집된 인덱스

장르별 섹션 편집으로 각 장르별 출제 포인트를
일관되게 연습하기 좋다.

03.

깔끔한 레이아웃의 2단 편집

모의고사 형식의 편집으로
실전을 연습처럼 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극대화 하였다.

02.

지문분석으로 독해력 향상하기

문제 풀이만 하는 것은 끝! 지문 분석을 통해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한다.

I. 인문

25. 2020학년도 11월

난이도 ★★☆☆

풀이시간 분 초

정답과 해설 p.63



지문분석으로 독해력 향상하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는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를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과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즈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 인지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베이즈주의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참이라는 것만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의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 보자.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될 때,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에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조건화 원리에 ㉣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갑이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 본다.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용성에 호소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확고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용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01. 뒷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 ②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③ 믿음의 정도를 어떤 경우에 바꾸고 어떤 경우에 바꾸지 말아야 할까?
- ④ 믿음의 정도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까?
- ⑤ 임의의 명제에 대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02.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약 올이 ㉠이라면 올은 동시에 ㉢일 수 없다.
- ② ㉢은 올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 믿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 ③ ㉢은 올이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고 믿는다면 올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④ ㉢은 올의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있다고 본다.
- ⑤ ㉢은 올이 내일 눈이 온다.와 내일 비가 온다.가 모두 거짓이라고 믿더라도 후자를 전자보다 더 강하게 거짓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03. 조건화 원리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 ②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준다.
- ③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는다.
- ④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⑤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기 전에 그와 다른 명제에 대해 가장 강하지도 않고 가장 약하지도 않은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식 주체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 나기출의 특징 _ 해설편

01. 지문해설

난이도 높은 지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험장에서 이렇게 지문을 읽으라는 실전적인 해설이다.

II. 사회

14. 2016학년도 11월AB

7개년 모든 기출, 2021 ALL NEW 나기출

P와 E의 소송 사례

#지문해설

㉠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로 지문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필자가 이 소송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부른다. 이 소송과 관련하여서 부관, 기한, 조건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개념을 반드시 체크해두자. 필자가 개념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후에 제시할 설명의 전제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언어 약속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개념을 제대로 파악해두지 않는다면, 당연히 필자랑 말이 통하지 않겠지? 정도만 안 될 뻔. 간단한 메모도 좋다.

부관	기한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해			
		효과 발생, 소멸			
조건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해 효과 발생, 소멸	실현 ⇒	효과 발생	정지 조건	
			효과 소멸	해제 조건	

비문학에서 “일단 문제로 가보자.”라는 것은 최약의 판단이다. 지문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잡고 있어야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다.

㉢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확정 판결 = 상소X or 대법원 최종 판결 선고이다. 기판력이 있으므로 같은 사안에 대해 모순되는 확정 판결은 없다.

㉣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판결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정이 생김에 다른 사안의 소송이 되어 기판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3문단에 나온 ‘같은 사안’과 4문단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사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독해해야겠지?

㉤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이 문장!! P와 E의 소송? 아무 생각 없이 독해를 진행하였다면 당황한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사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지만, 2~4문단의 개념과 확정 판결은 1문단의 사례와 반드시 관련이 있게 나온 것이다. 굳이라는 것은 ‘단일한 화제’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정보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문단별 정보의 해석에만 급급했다면 학생들은 벌써 1문단의 사례를 까맣게 잊고 제단 문어에만 열심히 밀착 고아하여 읽었을 것이다. 이 지문이 고난도 지문인 이유는, 처음에 제시된 정보를 계속 잊지 않고 지문 내용과 연결 지으려는 집요한 독해를 해야만 전체 흐름을 잡을 수 있는 ABA 구조의 지문이기 때문이다. 자, 당황했던 학생들은 다시 1문단의 사례를 읽고 와서 나머지 지문을 읽어 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P가 첫 번째 소송에서 패소하면 E가 제시한 정지 조건이 실현된다. 2문단에서 제시된 내용이지. 또한, 3~4문단에서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른 사안으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P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고, 정지 조건이 실현되었으므로 승소한다. 그럼 E는? 확정 판결에 대한 기판력 때문에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2~4문단(B)의 정보는 1문단(A)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5문단(A)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었었던 것이다. [A-B-A] 구조의 지문에서는 중간에 제시되는 B에 속마(??) A를 잇는 무를 범하기 쉬운데, 정보의 구조화를 잊지 말고 집요하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 없이
기출 풀지 마라”

02. 지문분석 + 형태샘 comment

단순한 문제 해설뿐 아니라 실전적 지문분석도 같이 한다.

03. 형태샘의 과외시간+

전형태 선생님과 1:1 과외!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상세한 과외식 해설.

시험장에 강한
실전 문제 전횡태

#지문분석

P와 E의 소송 사례

P의 계약: E 첫 승소 시 수강료 지급

P: 승소 시 판결에 따라 수강료 지급,
패소 시 계약에 따라 수강료 지급

E: 승소 시 판결에 따라 수강료 지급 X,
패소 시 계약에 따라 수강료 지급 X

부관

일정 효과 발생·소멸에 제한 두는 것

(①): 100% 일사할 사실에 의존

조건: 일사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

정지 조건: 효과 발생

(②) 조건: 효과 소멸

확정된 판결

기간 안에 상소 제기 X or 최종 판결 → (③) 인정
→ 다시 소송 불가(같은 사건에 대해 모순된 판결 존재 X)

but, 법률상 새로운 사건 생겼을 때는 소송 가능

P와 E 사이의 소송 전제

첫 번째 소송: 조건(E의 첫 승소) 성취 X → E 승소 판결
→ 조건이 달라졌으므로 다시 소송 가능

두 번째 소송: 조건(E의 첫 승소) 실현 → P 승소 판결
→ E가 다시 소송할 만한 (④) 가 없음



형태샘 comment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가는 독해력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ABA' 구조의 지문이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 A를 얘기하며 사례(P와 E의 분쟁)나 개념(기한, 조건)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와 상관없이 보이는 B(확정 판결)를 제시한다. 이때 많은 학생들이 B를 독해하면서 A를 까먹게 된다. 이후에 다시 A'(P와 E의 분쟁)를 제시하며 B에서 했던 얘기를 정리한다. 지문의 처음에 나왔던 A를 기억하고 있던 학생들은 마지막에 나오는 A'를 보면서 독해의 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처음에 나왔던 A를 까먹은 학생들은 A'를 보면서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가는 독해력을 요구한다고 얘기한 것이다.

01.

정답 설명

① 2문단에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승소'라는 사건은 100%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한'이 아닌 '조건'이라고 해야 옳은 진술이 된다.

형태샘의 과외시간+

지문에서 중요한 개념을 복잡하게 제시하면, 간단하게라도 메모하는 것이 좋다.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후에 나오는 사례들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20~30초 정도 메모하는 것이 2~3분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임을 꼭 기억하자.

오답 설명

- ② '기한'은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며,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모두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것이 공통된다.
- ③ '해제 조건'은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개념을 고려할 때에 적절한 설명이다.
- ④ 3문단에서 상소가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될 때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지며,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긴다고 하였다.
- ⑤ 3문단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 없도록 기판력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02.

정답 설명

③ P가 소송을 한 이유는 E로부터 수강료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첫 번째 소송과 두 번째 소송에서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오답 설명

- ① 소송의 쟁점은 계약이 유효한지의 여부가 아닌, 수강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P는 수강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E는 수강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② 첫 번째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 ④ 두 번째 소송은 E가 승소한 후에 진행되므로, 'E가 처음으로 승소한 후'라는 조건을 달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한 상태이므로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야

번호	정답	정답률 (%)	연식별 '인력미흡' (%)				
			①	②	③	④	⑤
1	①	66	66	6	11	12	5
2	③	69	9	6	69	9	7
3	⑤	64	7	9	6	14	64
4	②	48	5	48	7	22	18

I ◦ 인문

01	2014-6a 냉전 기원에 관한 논의	14	16	2016-11b 도덕적 평가	44
02	2014-6b 본질에 대한 탐구	16	17	2017-6 유비 논증	46
03	2014-9a 세계관에 대한 탐구	18	18	2017-11 지식의 구분	48
04	2014-9b 주희&정약용	20	19	2018-6 울곡 이이	50
05	2014-11a 아놀드 토인비	22	20	2018-9 양자 역학과 비고전 논리	54
06	2014-11b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	24	21	2018-11 목적론	58
07	2015-6a 고고학	26	22	2019-6 이익과 최한기의 인체관	60
08	2015-6b 정합설	28	23	2019-11 가능세계	64
09	2015-9a 자연법	30	24	2020-6 에피쿠로스 사상	66
10	2015-9b 맹자의 '의(義)'사상	32	25	2020-11 베이지주의	68
11	2015-11b 역사가 신채호	34			
12	2016-6a 메타 윤리학	36			
13	2016-6b 「장자」 '나를 잊는다'	38			
14	2016-9b 설명	40			
15	2016-11a 귀납	42			

Index | 지문 모아보기

● 2014-6ab	캄피돌리오 광장	220
● 2014-6a	냉전 기원에 관한 논의	14
	법률(손해배상)	72
	빛의 산란	132
	플래시 메모리	184
● 2014-6b	본질에 대한 탐구	16
	저작물의 공정 이용	74
	입체 지각	134
● 2014-9ab	소송	76
● 2014-9a	세계관에 대한 탐구	18
	동물들의 길찾기	136
	X선과 CT	186
	한옥의 창호	222
● 2014-9b	주회&정약용	20
	각운동량	138
	단토의 미술 종말론	224
● 2014-11ab	간접 광고	78
● 2014-11a	아놀드 토인비	22
	분광 분석법	140
	CD드라이브	188
	승선교	226
● 2014-11b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	24
	전향력	142
	베토벤의 교향곡이 중심이 된 이유	228
● 2015-6ab	작가주의 비평 이론	230
● 2015-6a	고고학	26
	인센티브 계약	80
	열처리 미생물 제거	144
	발광 효율	190
● 2015-6b	정합설	28
	광고 규제	82
	별의 밝기	146
● 2015-9ab	추사 김정희의 목란화	232
● 2015-9a	자연법	30
	후각	148
	프로그램 동시 실행	192
● 2015-9b	맹자의 '의' 사상	32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84
	점탄성	150
● 2015-11ab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234
● 2015-11a	공공 서비스	86
	단백질	152
	디지털 영상	194
● 2015-11b	역사가 신채호	34
	사회 이론	88
	천체의 공전 궤도에 따른 현상	154
● 2016-6ab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90
● 2016-6a	메타 윤리학	36
	원자	156
	지문 인식 시스템	196
● 2016-6b	『장자』 '나를 잊는다'	38
	현대의 개체화 현상	92
	암흑 물질	158

● 2016-9ab	회화주의 사진	236
● 2016-9a	소비자 권익 보호 정책	94
	산패	160
	해시 함수	198
● 2016-9b	설명	40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	96
	항암제	162
● 2016-11ab	P와 E의 소송 사례	98
● 2016-11a	귀납	42
	돌림힘	164
	애벌랜치 광다이오드	200
● 2016-11b	도덕적 평가	44
	지식 경영	100
	자유 낙하	166
● 2017-6	유비 논증	46
	인공 신경망	202
	음악적 아름다움의 구현	238
● 2017-9	사단 법인	102
	열과 일의 이해	168
	콘크리트	204
● 2017-11	지식의 구분	48
	보험	104
	반추 동물의 소화 과정	170
● 2018-6	울곡 이이	50
	통화 정책	108
	DNS 스푸핑	208
● 2018-9	양자 역학과 비고전 논리	54
	집합 의례	110
	하이퍼리얼리즘	240
● 2018-11	목적론	58
	환율과 정부 정책 수단	112
	부호화를 통한 데이터 전송	210
● 2019-6	이익과 최한기의 인체관	60
	계약과 법규	116
	검사용 키트	212
● 2019-9	채권	118
	주사 터널링 현미경	214
	근대 도시에 대한 견해들	242
● 2019-11	가능세계	64
	계약과 법률 행위	120
	우주론	172
● 2020-6	경제 정책 수단	122
	공생발생설	176
	에피쿠로스 사상	66
● 2020-9	역사와 영화의 관계	244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기술	216
	점유와 소유	124
● 2020-11	장기 이식	180
	베이즈주의	68
	국제 협약이 갖는 규범성	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 도달한다.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0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02.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 ②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③ 콰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 ④ 콰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⑤ 콰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지문분석으로 독해력 향상하기

03. 위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 ②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
- ③ ㉡는 ㉠과 ㉢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 ④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는 ㉢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 ⑤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을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군.

04. 위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 ②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 ③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④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05.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잇따른다
- ② 다다른다
- ③ 봉착한다
- ④ 회귀한다
- ⑤ 기인한다

지식의 구분

#지문해설

①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필자의 관심사를 찾은 뒤, 어떤 유형의 지문인지 알면 구조적 접근이 쉽겠지. 일단 필자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지식 구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러 입장이 나올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체크해둬야 한다.

	논리실증주의자	포퍼
경험과 무관한 지식	수학적, 논리학 지식	
경험에 의존하는 지식	과학적 지식 [가설(과학적 지식의 후보) →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 → 관찰 · 실험(=경험) → 판단]	
가설 → 새로운 지식 +	가설로 도출한 예측이 맞을 경우	가설로 도출한 예측이 틀리지 않을 경우

② 하지만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다른 입장이 나왔다. 중요한 출제 포인트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신경 쓰면서 읽어 보자.

먼저 차이점이 제시되었구나.

논리실증주의자와 호퍼는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에 대한 경험적 판단을 거쳐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콰인은 가설만으로는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무슨 말인지, 이어지는 설명을 읽어 보자.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논리적인 예측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가설 이외에도 기존 지식, 여러 조건 등을 총합하여야 하므로, 가설만이 아닌 전체 지식이 경험적 판단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콰인의 총체주의이다. 결국 필자는 논리실증주의자&포퍼, 콰인의 총체주의를 대조하여 지식의 구분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논리실증주의자&포퍼 : 분석 명제(경험 X) ⇔ 종합 명제(경험 O)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총각은 총각이다.” : “총각 = 총각”이니 당연히 동어 반복 명제다.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 : “총각”을 정의하면 “미혼의 성인 남성”이니 역시 동어 반복 명제이지. 총각=총각을 어떤 경험을 해야만 참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위의 두 명제는 모두 우리의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될 수 있다. 이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에 의하면 ‘분석 명제’이지.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는 “총각은 총각이다.”로 환원될 수 있지. 따라서 경험을 통해 참거짓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총각=미혼의 성인 남성’인 이유는 서로 대체 가능(참거짓 변화 X)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의적 표현은 반드시(필연성) 대체 가능해야만 하지. 이 필연성을 근거로 하여 동의적 표현 [‘총각=미혼의 성인 남성’]은 “총각은 총각이다.”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로 환원되게 한다. 앞서 설명했듯 ‘환원’된다는 것은 분석 명제라는 뜻이니 필연성 개념은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필연성의 근거가 되고, 필연성에 따라 동의적 표현이 가능하고..... 끝이 없겠구나. 개념이 서로에게 의존하는 순환론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 [필연성 → 동의적 표현 →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 필연성 → 동의적 표현...]]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콰인은 분석 명제는 개념 자체가 순환론에 빠지는 것이므로,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④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콰인은 수학, 논리학도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경험과 직접 충돌하는지의 여부로 지식을 나누었구나. 특이한 것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다른 종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경험과 직접 충돌 - X : 중심부 지식 (견고함. 수학, 논리학)

- O : 주변부 지식 (참거짓 쉽게 바뀜)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논리실증주의자 & 포퍼		과인의 총체주의	
분석 명제	종합 명제	중심부 지식	주변부 지식
경험과 무관	경험에 의존	경험과 직접 충돌 X (참거짓 쉽게 바뀌지 않음)	경험과 직접 충돌 O (참거짓 쉽게 바뀜)
수학, 논리학	과학	수학, 논리학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의 경험적 판단 → 가설이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됨		지식의 변화 : 개별적 지식의 단순 누적 X 모든 지식은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총체주의는 실용성이 있는 가설이라면 그 가설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식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논리학에서는 한계점을 보이거나.

#지문분석

지식의 구분

논리실증주의자&포퍼

지식을 명확히 구분

- (①) (경험과 무관한 것) ex) 수학적, 논리학 지식
- (②) (경험에 의존하는 것) ex) 과학적 지식

경험(관찰·실험)에 의존하는 과학적 방법 통해 과학적 지식이 누적된다고 주장

과인

개별적 가설뿐 아니라 전체 지식(가설, 기존 지식, 여러 조건 등)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됨 → '㉠ ③)'

(③) 정당화 위해 분석 명제·종합 명제 구분 부정

- (④) (경험과 충돌 X) → 상대적으로 견고
- (⑤) (경험과 충돌 O) → 참/거짓 쉽게 바뀜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X
→ 서로 다른 종류로 간주 X

대부분의 경우 (⑤)을 수정
but, 실용적 필요로 (④) 수정하는 경우 O
→ 중심부 지식, 주변부 지식 모두 수정 대상 O

지식의 변화는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 X

장점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을 피하여 수용 가능

한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명확한) 지식은
(①)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형태샘 comment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그리고 과인의 입장이 대립되는 대립형 구조이다. 이렇듯 전체 구조는 선명하지만 무엇이 대립되는지 그 기준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대충 독해를 하면, 추상적인 정보들 속에서 혼동에 빠질 수 있다. 거시적인 정보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면서 뼈대를 잡고, 미시적인 정보는 나중에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독해를 해야 한다.

#문제분석 01-05번

번호	정답	정답률 (%)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1	②	70	11	70	11	5	3
2	④	64	17	6	8	64	5
3	⑤	57	5	6	17	15	57
4	⑤	53	18	10	10	9	53
5	②	80	4	80	12	2	2

01.

정답 설명

형태쌍의 과외시간⁺

대립형 지문에서는 공통점을 찾으라는 선지가 항상 출제된다. 특히 적절한 것을 하나 고르라는 문제에서는 정답 선지로 등장한다. 지문을 읽을 때, 의도적으로 공통점을 신경 쓰면서 읽어야 바로 잡아낼 수 있다.

- ② 1문단을 보면 ㉠은 가설로부터 도출된 예측을 경험을 통해 판단함으로써 가설을 시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2문단을 보면 ㉡은 가설뿐 아니라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잡아낼 수 있는 공통점은 ‘어떤 것을 시험할 때 반드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바로 ②를 향해 달려가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나머지 선지를 검토해야 한다.
- 똑같이 답을 도출하더라도 하나씩 지워가면서 얻은 것과 한방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얻은 것은 시간 활용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이것은 실전에서 전체 시험의 밸런스와의 연결이 된다. 꼭 명심해야 한다. 이런 문제 유형은 지문을 읽을 때 신경 쓰면서 읽었어야 하고, 바로 정답을 찾으러 가야 한다.

오답 설명

- ① ㉠은 지식을 경험과의 연관성에 따라 구분하고,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과학적 지식이 개별적으로 누적된다고 볼 것이다.
- ③ 1문단에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라고 언급하였으므로, ㉠은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것이다.
- ④ 1문단에서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언급하였으므로, ㉠은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것이다.
- ⑤ 3문단에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은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것이다.

02.

정답 설명

- ④ 3문단의 핵심 내용인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콰인의 견해에 대한 근거를 물어본 문제이다. 이른

바 출제요소인 ‘견해나 판단의 근거’를 물어본 것인데, 콰인이 제시한 근거는 순환 논증의 오류이다.

여기서 순환 논증의 오류는 논증되어야 할 명제를 근거로 하는 잘못된 논증이다.

형태쌍의 과외시간⁺

〈예시1〉

A : 그는 죽었어.

B : 사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 호흡이 정지했기 때문이지.

B : 왜 호흡이 정지했나요?

A : 죽었으니까.

〈예시2〉

학생 : 왜 저는 국어를 못하는 것일까요?

쌤 : 그건 독해력이 부족해서야.

학생 : 왜 독해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쌤 : 국어를 못하기 때문이야.

3문단의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보자.

- 1) 동어 반복 명제와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 2) 환원이 가능한 이유는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 3) 동의적 표현은 필연성 개념에 의존한다.
- 4) 필연성 개념은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

여기서 4) → 1)로 꼬리를 무는 순환 논증의 오류가 발생한다.

오답 설명

- ① 1문단의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측이 맞을 경우에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포퍼가 아닌 ‘논리실증주의자’의 견해에 해당한다.
- ② 3문단에서 논리실증주의자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와 같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라고 하였다. 분석 명제는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것이므로, 관찰이나 실험과 같은 경험을 통해 판단하지 않는다.
- ③ 3문단에서 “콰인은 종합 명제(경험에 의존하는 지식)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 ⑤ 동어 반복 명제는 의미가 같으며,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03.

정답 설명

- ⑤ 마지막 문단에서 총체주의는 가설에 대한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용적으로 필요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4문단에서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 따라서 가설을 통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실용적으로 필요하면, 전체 지식을 수정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오답 설명

- ① 2문단의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4문단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2문단의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4문단의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

정답 설명

형태쌍의 과외시간⁺

당시 수능에서 등급을 결정짓는 킬러 문항이었다. 이 문제는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 ‘비판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지워나가는 것이 아닌, 찾아가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즉, 지문을 통해 어떻게 비판할지 미리 판단을 해 놓고, 그것에 해당하는 선지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애매한 선지를 지우기 위해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잘 지워지지 않는 선지에 낚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 ⑤ 일단 지문으로 가자. 마지막 문단에 보면, 총체주의는 논리학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 즉, 지식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눈 총체주의에 대해 확실하게 구분되는 지식이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이것과 가장 연관되는 선지를 찾으러 가야 한다.
- 추가 설명을 하자면, ‘논리학의 법칙’은 과인에 따르면 ‘중심부 지식’이다. 반면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은 경계를 명확하게 나눌 수 없기에 다른 종류가 아니고, 중심부 지식도 경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과인의 견해이다. 하지만 마지막 문단에 의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논리학 법칙처럼 경험과 무관한, 즉 주변부와 종류가 다른 중심부 지식이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답 설명

- ① 이진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총체주의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2문단을 보면 총체주의는 ‘가설, 기존 지식들, 여러 조건’을 합쳐야만 예측이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보았다. 즉,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기존 지식들’이나 ‘여러 조건’이 틀릴 수도 있으니,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② 해당 진술은 총체주의의 견해와 일치한다. 과인은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해당 진술은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없다.
- ③ 선지 내용이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총체주의는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4문단을 보면 원칙적으로 중심부와 주변부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해당 진술은 총체주의의 견해와 일치한다. 과인은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해당 진술은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없다.

05.

정답 설명

- ② ‘도달하다’는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다다르다’ 또한 ‘어떤 수준이나 한계에 미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서로 대체할 수 있다.

오답 설명

- ① ‘잇따르다’는 ‘어떤 사건이나 행동 따위가 이어 발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도달하다’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③ ‘봉착하다’는 ‘어떤 처지나 상태에 부닥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도달하다’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④ ‘회귀하다’는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돌아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도달하다’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⑤ ‘기인하다’는 ‘어떠한 것에 원인을 두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도달하다’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구조도 정답

- | | |
|----------|----------|
| ① 분석 명제 | ② 종합 명제 |
| ③ 총체주의 | ④ 중심부 지식 |
| ⑤ 주변부 지식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 부른다.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0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 ②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 ③ 계약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 ④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 ⑤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02.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②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 ③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 ④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에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다.



지문분석으로 독해력 향상하기

0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 간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 또는 (나)의 경우가 생겼다고 하자.

(가)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①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 ② (가)의 경우, 갑은 빌려 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나)의 경우,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⑤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04.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수취하였다
- ② ㉡ : 부가하는
- ③ ㉢ : 지시한다
- ④ ㉤ : 형성되었을
- ⑤ ㉥ : 경유하여

P와 E의 소송 사례

#지문해설

①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로 지문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필자가 이 소송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②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부른다. 이 소송과 관련하여서 부관, 기한, 조건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개념을 반드시 체크해두자. 필자가 개념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후에 제시할 설명의 전제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언어 약속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개념을 제대로 파악해두지 않는다면, 당연히 필자랑 말이 통하지 않겠지? 정돈이 안 될 땐, 간단한 예도 좋다.

부관	기한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해 효과 발생, 소멸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해 효과 발생, 소멸	실현 ⇒	효과 발생 효과 소멸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비문학에서 “일단 문제로 가보자.”라는 것은 최약의 판단이다. 지문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잡고 있어야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다.

③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확정 판결 = 상소X or 대법원 최종 판결 선고이다. ‘기판력이 있으므로 같은 사안에 대해 모순되는 확정 판결은 없다.’

④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원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른 사안의 소송이 되어 기판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3문단에 나온 ‘같은 사안’과 4문단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사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독해해야겠지?

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이 문장!! P와 E의 소송? 아무 생각 없이 독해를 진행하였다면 당황한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사고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지만, 1~4문단의 개념과 확정 판결은 1문단의 사례와 반드시 관련이 있기에 나온 것이다. 글이라는 것은 ‘단일한 화제’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정보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문단별 정보의 해석에만 급급했던 학생들은 벌써 1문단의 사례를 까맣게 잊고 재판 용어에만 열심히 밀줄 그어가며 읽었을 것이다. 이 지문이 고난도 지문인 이유는, 처음에 제시된 정보를 계속 잊지 않고 지문 내용과 연결 지으려는 집요한 독해를 해야만 전체 흐름을 잡을 수 있는 ABA 구조의 지문이기 때문이다. 자, 당황했던 학생들은 다시 1문단의 사례를 읽고 와서 나머지 지문을 읽어 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P가 첫 번째 소송에서 패소하면 E가 제시한 정지 조건이 실현된다. 2문단에서 제시된 내용이지. 또한, 3~4문단에서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른 사안으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P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고, 정지 조건이 실현되었으므로 승소한다. 그럼 E는? 확정 판결에 대한 기판력 때문에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1~4문단(B)의 정보는 1문단(A)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5문단(A')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었다. [A-B-A'] 구조의 지문에서는 중간에 제시되는 B에 속아(?) A를 잊는 우를 범하기 쉬운데, 정보의 구조화를 잊지 말고 집요하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문분석

P와 E의 소송 사례

P·E의 계약 : E 첫 승소 시 수강료 지급

P : 승소 시 판결에 따라 수강료 지급,
패소 시 계약에 따라 수강료 지급

E : 승소 시 판결에 따라 수강료 지급 X,
패소 시 계약에 따라 수강료 지급 X

부관

일정 효과 발생·소멸에 제한 두는 것

(①) : 100% 일어날 사실에 의존

조건 :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

정지 조건 : 효과 발생

(②) 조건 : 효과 소멸

확정된 판결

기간 안에 상소 제기 X or 최종 판결 → (③) 인정
→ 다시 소송 불가(같은 사안에 대해 모순된 판결 존재 X)

but, 법률상 새로운 사정 생겼을 때는 소송 가능

P와 E 사이의 소송 전개

첫 번째 소송 : 조건(E의 첫 승소) 성취 X → E 승소 판결
→ 조건이 달라졌으므로 다시 소송 가능

두 번째 소송 : 조건(E의 첫 승소) 실현 → P 승소 판결
→ E가 다시 소송할 만한 (④)가 없음



형태쌤 comment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독해력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ABA' 구조의 지문이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 A를 얘기하며 사례(P와 E의 분쟁)나 개념(기한, 조건)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와 상관없이 보이는 B(확정 판결)를 제시한다. 이때 많은 학생들이 B를 독해하면서 A를 까먹게 된다. 이후에 다시 A'(P와 E의 분쟁)를 제시하며 B에서 했던 얘기를 정리한다. 지문의 처음에 나왔던 A를 기억하고 있던 학생들은 마지막에 나오는 A'를 보면서 독해의 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처음에 나왔던 A를 까먹은 학생들은 A'를 보면서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독해력을 요구한다고 얘기한 것이다.

#문제분석 01-04번

번호	정답	정답률 (%)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1	①	66	66	6	11	12	5
2	③	69	9	6	69	9	7
3	⑤	64	7	9	6	14	64
4	②	48	5	48	7	22	18

01.

정답 설명

- ① 2문단에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승소'라는 사건은 100%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한'이 아닌 '조건'이라고 해야 옳은 진술이 된다.

형태쌤의 과외시간+

지문에서 중요한 개념을 복잡하게 제시하면, 간단하게라도 메모하는 것이 좋다.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후에 나오는 사례들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20~30초 정도 메모하는 것이 2~3분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임을 꼭 기억하자.

오답 설명

- ② '기한'은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며,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모두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것이 공통된다.
- ③ '해제 조건'은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개념을 고려할 때에 적절한 설명이다.
- ④ 3문단에서 상소가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될 때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지며,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긴다고 하였다.
- ⑤ 3문단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 없도록 기판력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02.

정답 설명

- ③ P가 소송을 한 이유는 E로부터 수강료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첫 번째 소송과 두 번째 소송에서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오답 설명

- ① 소송의 쟁점은 계약이 유효한지의 여부가 아닌, 수강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P는 수강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E는 수강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② 첫 번째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 ④ 두 번째 소송은 E가 승소한 후에 진행되므로, 'E가 처음으로 승소한 후'라는 조건을 달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한 상태이므로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야

옳은 진술이 된다.

- ⑤ 첫 번째 소송은 E의 승소, 두 번째 소송은 P의 승소로 결정되므로 승패가 상반되기는 하나, 두 판결 가운데 하나가 무효가 될 이유는 없다. 'E의 첫 승소'라는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겨,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03.

정답 설명

- ⑤ (나)에서는 갚기로 한 날이 2015년 11월 30일이기 때문에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3문단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계약서가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가 없다.

오답 설명

- ① (가)의 경우, 갑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기판력이 생겨,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게 된다.
- ② 3문단에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②의 상황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므로,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나)에서는 2015년 11월 30일에 갚기로 하였고,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이 패소하였기 때문에 을은 정해진 2015년 11월 30일까지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 ④ 4문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④의 상황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므로, 계약일 이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04.

정답 설명

- ② 어이가 없게도 이 문제가 당시 수능 오답률 3위에 등극하였다!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자신하지 말고, 어휘에 대한 학습은 꼭! 열심히 하자. 그것이 1등급과 아닌 등급의 사소하고도 큰 차이다.
- '덧붙이다'는 '군더더기로 팔려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덧붙다'의 사동사이다. 따라서 '주된 것에 덧붙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부가(附加)하다'로 대체할 수 있다.

오답 설명

- ① '받아들이다'는 '다른 사람의 요구, 성의, 말 따위를 들어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수취하다'는 '거두어들여서 가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므로, 어울리지 않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③ '부르다'는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지시하다'는 '일러서 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므로, 어울리지 않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④ '생기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형성되다'는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므로, 어울리지 않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⑤ '거치다'는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경유하다'는 '어떤 곳을 거쳐 지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므로, 어울리지 않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구조도 정답

- ① 기한
② 해제
③ 기판력
④ 사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주에서 지구의 북극을 내려다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자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지구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을 전향력이라 한다.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구 모양인 지구의 둘레는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적도 상의 특정 지점에서 동일한 경도 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을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한다고 하자. 이때 물체에 영향력을 주는 마찰력이나 다른 힘은 없다고 가정한다. 적도 상의 발사 지점은 약 1,600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북쪽으로 발사된 물체는 발사 속력 외에 약 1,600km/h로 동쪽으로 진행하는 속력을 동시에 갖게 된다. 한편 북위 30도 지점은 약 1,400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목표 지점은 발사 지점보다 약 200km/h가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사된 물체는 겨냥했던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지구 표면의 발사 지점에서 보면, 발사된 물체의 이동 경로는 처음에 목표로 했던 북쪽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타나게 된다.

이번에는 북위 30도에서 자전 속력이 약 800km/h인 북위 60도의 동일 경도 상에 있는 지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같은 실험을 실행한다고 하자. 두 지점의 자전하는 속력의 차이는 약 600km/h이므로 이 물체는 적도에서 북위 30도를 향해 발사했을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진다. 결국 위도에 따른 자전 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이러한 편향 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뿐만 아니라 물체의 이동하는 속력과도 관련이 있다.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지며, 지표 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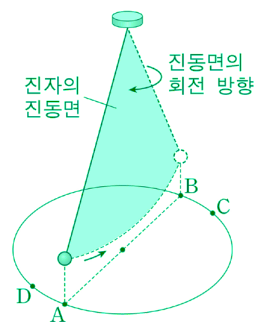
01. 위트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의 자전 주기는 동일하다.
- ② 운동장에 정지해 있는 축구공에는 위도에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남위 50도 지점은 남위 40도 지점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빠르다.
- ④ 남위 30도에서 정남쪽의 목표 지점으로 발사한 물체는 목표 지점보다 동쪽에 떨어진다.
- ⑤ 우리나라의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의 이동 방향은 전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02. 위트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전향력은 1851년 프랑스의 과학자 푸코가 파리의 팽테옹 사원에서 실시한 진자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푸코는 길이가 67m인 줄의 한 쪽 끝을 천장에 고정하고 다른 쪽 끝에 28kg의 추를 매달아 진동시켰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추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전향력에 의해 C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하고, 되돌아올 때는 D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 ① 남반구에서 이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군.
- ② 파리보다 고위도에서 동일한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더 느리게 회전하겠군.
- ③ 북극과 남극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주기는 동일하겠군.
- ④ 적도 상에서 동서 방향으로 진자를 진동시킬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회전하지 않겠군.
- ⑤ 남위 60도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움직이는 추는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편향되겠군.

전향력

#지문해설

① 우주에서 지구의 북극을 내려다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자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지구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을 전향력이라 한다. 전향력의 개념과 이로 인한 현상이 설명되는 것으로 보아, 필자는 전향력에 관심이 있다.

②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구 모양인 지구의 둘레는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비례 관계는 반드시 문제화된다! 간단한 화살표로 꼭 메모하면서 독해를 진행하자!

[지구 둘레 ↓ 위도 ↑] / 참고로, 적도는 위도의 기준선을 말한다. 지구의 허리인 적도의 둘레 길이가 최장이구나.

[자전 주기 :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 \Rightarrow 자전 속력 : 적도 > 고위도 (남극, 북극 = 0)]

지구 둘레와 위도, 자전 주기의 관계, 이해되니? 적도는 둘레가 가장 길고 고위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둘레가 짧으며, 자전 주기는 똑같이 맞춰야 한다잖아. 그러려면 적도의 자전 속력이 고위도보다 빨라야만 동일한 주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③ 적도 상의 특정 지점에서 동일한 경도 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을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한다고 하자. 이때 물체에 영향력을 주는 마찰력이나 다른 힘은 없다고 가정한다. 적도 상의 발사 지점은 약 1,600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북쪽으로 발사된 물체는 발사 속력 외에 약 1,600km/h로 동쪽으로 진행하는 속력을 동시에 갖게 된다.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발사 지점도 특정 속도로 자전하는 셈이니까 발사된 물체도 발사 지점(적도)의 속력을 함께 갖는 것이지.

한편 북위 30도 지점은 약 1,400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목표 지점은 발사 지점보다 약 200km/h가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사된 물체는 겨냥했던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지구 표면의 발사 지점에서 보면, 발사된 물체의 이동 경로는 처음에 목표로 했던 북쪽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타나게 된다. 2문단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진다고 하였으니까 목표 지점(북위 30도)은 발사 지점(적도)과 위도가 달라서 속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목표 지점이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인다는 말로 보아, 북반구에서 지구의 자전은 동쪽 방향임을 알 수 있지? 발사 지점이 목표 지점보다 200km/h 빠른 셈이니, 발사 물체가 200km/h만큼 동쪽으로 더 날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발사된 물체의 이동 경로가 오른쪽(동쪽)으로 휘어져 나타나는 거야.

④ 이번에는 북위 30도에서 자전 속력이 약 800km/h인 북위 60도의 동일 경도 상에 있는 지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같은 실험을 실행한다고 하자. 두 지점의 자전하는 속력의 차이는 약 600km/h이므로 이 물체는 적도에서 북위 30도를 향해 발사했을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진다. 결국 위도에 따른 자전 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이러한 편향 현상은 북쪽 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3문단의 경우와 같은 원리이다. 발사 물체가 도착 지점보다 600km/h 빠른 속도로 날아가므로 역시 더 오른쪽에 도착하는 것이다. 비례 관계가 또 나왔으니 간단히 정리해두고 마지막 문단으로 가 보자.

[위도 ↑ 자전 속력 차이 ↑ 편향되는 정도 ↑]

⑤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뿐만 아니라 물체의 이동하는 속력과도 관련이 있다.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지며, 지표 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물체의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발사 지점과 목표 지점의 속력 차이가 더 커지겠지. 정지한 물체는 위도의 변화가 없겠지? 따라서 위도에 따른 자전 속도 차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거고, 전향력도 나타나지 않지. 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 북반구와 남반구는 자전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는 것이다. 쉽지 않은 지문이었지? 고난도 과학 지문의 경우,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메모한 주요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묶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문분석

전향력

→ 지구의 (①) 때문에 나타나는 가상의 힘

→ 운동하는 물체가 (②)으로 편향되는 원인

지구 둘레 : 적도↑, 고위도↓
 자전 주기 :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
 자전 속력 : (③)에서 최대, 남극·북극에서 0

→ **전향력 크기**

(④)로 갈수록 편향 정도가 커짐
 남극·북극에서 최대, 적도에서는 0

물체 이동 속력과 비례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0

→

· 북반구 → (⑤),
 · 남반구 → (⑥)으로 편향



형태샘 comment

어떠한 개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지문에서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다. 필자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내용은, 이해의 한계가 당연히 있기에 심도 있게 출제하지 않지만, 필자가 예시 등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은 집요하게 출제하므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문제분석 01-02번

번호	정답	정답률 (%)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1	③	53	6	4	53	35	2
2	②	33	12	33	13	32	10

01.

정답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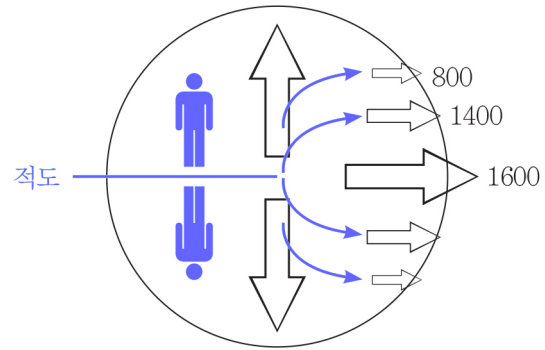
- ③ 2문단에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적도 쪽이 남·북극 쪽보다 자전 속력이 빠르다는 것이다. 남위 50도 지점은 남극 쪽과, 남위 40도 지점은 적도 쪽과 가까우므로, 남위 40도 지점이 남위 50도 지점보다 자전 속력이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오답 설명

- ① 2문단에서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라고 언급하고 있다.

- ② 5문단에서 “지표 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 ④ 지문의 마지막에서 전향력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이 선지에 손을 댄 학생들이 많았다.

아래 그림을 보자.



3문단에 나와 있듯이 적도에서 북위 30도로 물체를 발사하면 1600km/h와 1400km/h의 차이인 200km/h만큼 동쪽으로 휘게 된다. 그리고 북위 30도에서 북위 60도로 물체를 발사하면 1400km/h와 800km/h의 차이인 600km/h만큼 동쪽으로 더 휘게 된다.

그럼 남위 30도에서 정남쪽으로 물체를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속력의 차이가 발생하여 동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럼 한 번 더 설명해주지!

먼저 2문단에서 알 수 있듯,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문제를 풀자. 3문단에서는 적도에서 동일한 경도 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을 목표로 물체를 발사하면 발사를 한 적도 부근의 자전 속력이 빠르고 물체의 도착 지점인 북위 30도는 적도에 비해 속력이 느려 겨냥한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다.(여기서 더 동쪽으로 가게 되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남위 30도에서 정남쪽의 목표 지점으로 물체를 발사했다고 생각해 보자. 정남쪽이라면 경도는 똑같되, 위도가 더 높아지는 지점이겠구나. 위에서도 말했듯이 위도가 높아질수록 속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목표 지점과 다른 곳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남위 30도인 발사 지점이 목표 지점에 비해 시계 반대 방향인 동쪽으로 빨리 돌고 있으므로 실제 물체가 도달한 곳도 목표 지점에 비해 동쪽에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한,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 왼쪽으로 편향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니?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 내가 적도에서 북반구를 바라보고 서서 북반구를 향해 물체를 운동시킨다면 내가 도달하려 하게 했던 곳보다 내 기준으로 오른쪽에 치우쳐서 도달하게 되고, 내가 적도에서 남반구를 바라보고 서서 남반구를 향해 물체를 운동시킨다면 내가 도달하려 하게 했던 곳보다 내 기준으로 왼쪽에 치우쳐서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서 있는 방향에 따라 오른쪽과 왼쪽의 기준이 달라질 뿐 방향은 같은 것이다.

- ⑤ 1문단의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지구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을 전향력이라 한다.”에서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5문단에서 “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야구장에서 ‘날아가는 공’의 이동 방향 역시 전향력의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02.

정답 설명

형태쌍의 과외시간⁺

평가원 비문학의 <보기> 문제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지문을 통해 <보기>를 바라보는 유형으로, 지문의 정보와 <보기>의 정보를 1:1로 대응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비문학 <보기>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하나는 <보기>를 통해 지문을 바라보는 유형으로, 보통 <보기>의 정보를 통해 지문의 정보를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유형으로 제시가 된다. 문학과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면 된다.

- ② 이 문제는 첫 번째 유형이다. 따라서 지문의 정보와 보기의 정보를 제대로 1:1 대응시키고 들어가야 한다.

다만 시험장에서 ‘진동면의 회전’을 ‘자전’으로 잘못 대응시켰던 학생들이 많았다. 지문에서 지구가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진다고 하였으며 3문단에서 이를 통해 물체가 휘어지는 전향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다시 <보기>로 돌아가 보자. 추는 수평으로 진동(A→B→A→B...)해야 하는데, 운동 방향이 미세하게 휘어져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진동하고 있다. 그리고 ①을 통해 프랑스가 ‘북반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반구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 진자의 회전이 자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이와 같은 현상은 ‘전향력’과 관련이 있다고 나왔다. 그렇다! ‘진동면의 회전’은 자전 때문에 나타난 전향력을 보여주는 현상일 뿐, 자전 자체와 동일시되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진동면의

회전=전향력’이라는 전제로 선지를 들어갔어야 했다!

지문에서 전향력은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고, 북극과 남극에서는 최대, 적도에서는 0이며, 게다가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은 커지고,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민할 것도 없이 ‘진동면의 회전’은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고, 북극과 남극에서는 최대, 적도에서는 0이라는 판단을 하면 된다. 따라서 파리보다 고위도로 간다면 당연히 전향력에 해당하는 ‘진동면’은 더 많이 빠르게 회전함을 알 수 있다.

오답 설명

- ① 5문단에서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추가 B쪽에서 C쪽으로, 즉 오른쪽으로 편향되고 있으므로 ‘파리의 팽테옹 사원’은 북반구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반구에서는 이와 반대로 B에서 D가 있는 쪽, 즉 왼쪽으로 편향될 것이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북극과 남극에서의 자전 속력이 동일하므로 전향력 또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극과 남극에서 해당 실험을 할 경우, 진동면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지만 그 속력은 동일하여 주기가 동일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4문단에서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가 적도에서는 0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도 상에서 동서 방향으로 진자를 진동시킬 경우에는 진동면이 회전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5문단에서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남위 60도 지점에서 실험할 경우, 추가 이동 방향의 왼쪽 방향으로 편향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조도 정답

- ① 자전
- ② 동쪽
- ③ 적도
- ④ 고위도
- ⑤ 오른쪽
- ⑥ 왼쪽

2021

나 없 이
기 출
풀 지 마 라

국어강사 전형태

대성 SNC 출판 대표

대성마이맥 국어 대표 강사

나 없이 기출 풀지 마라 저자

강남대성 3년 연속 최상위 강의 평가

이강학원 국어과 최다 인원 마감 강사

값 21,900원



9 791188 881215

ISBN 979-11-88881-21-5 (전2권)